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8호 태풍 프란시스코 소멸 이래도 구세주의 능력을 못 믿는다면?



프란시스코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3일 예보

프란시스코 태풍이 부산 경남으로 통과할 것이라는 5일 예보

프란시스코 태풍 6일 부산 상륙직후 소멸

본보는 8월 1일자 신문에서 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소멸된 이유를 다뤘다(아래 그림 참조). 그 이유를 한 마디로 줄이면 “구세주께서 한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못 들어온다”이다. 그러면서 의심 많은 인생들을 위해 2018년에 태풍을 막은 기록도 같이 게재하였다. 바로 빠른 배문과 솔리이다.

구세주는 왜 태풍을 막아주는가

구세주께서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구세주라면 그 능력이 있어야 구세주라고 할 수 있지 아무 능력이 없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5가지 약속을 하였다. 5가지 약속은 이렇다. ①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② 한국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③ 한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④ 한국에 풍년들게 하겠다. ⑤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지금까지 이 약속은 모두 다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걸 보아 조희성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처럼 태풍을 막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구세주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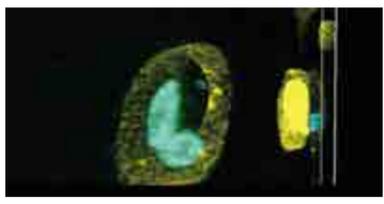
둘째, 구세주 조희성님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 시절 배고픈 설움을 겪었다. 그런 개인적인 체험 또한 한국에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비가 지라 곡식이 여물 때나 여름 후에 태풍이 불어오면 침수가 되거나 강풍에 쓰러져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다.

셋째, 구세주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다. 구세주가 출현했는데 그 구세주가

민천한 국가 출신이라면 세계인들이 그 존재를 선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의 한 가지로 한국인을 굶주리지 않고 잘 사는 국민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셨다. 한국이 잘 사는 부유한 나라가 되면 뭘 뭘 해도 먼저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쌀이 풍부하게 생산되어야 하는데, 풍년이 드는 게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기상조건, 일조량 등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걸 모르고 우연히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미개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인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유
셋째, 구세주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다. 구세주가 출현했는데 그 구세주가

영생뉴스 젊음 유지의 필수 조건은 세포의 뉴클레오타이드 생성



이유를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레이저 교수는 “중년의 샘물을 마시려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반대 방향에서 접근해 세포가 늙는 이유를 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 중단시키면 곧바로 노화 세포가 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이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고, 세포의 뉴클레오타이드 생성 능력을 유지하면 노화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말한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USC) 과학자들이, 우리를 ‘중년의 샘’으로 인도할지도 모를 체내 분자 경로를 노화 세포에서 발견했다. USC 비터비 공대의 닉 그레이엄 화학공학·재료과학 조교수 팀은 관련 연구 보고서를 저널 ‘바이오펜지컬 케미스트리(Biological Chemistry)’에 최근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온라인(링크)에 공개된 연구 개요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세포 노화의

이런 역발상의 시도는 애초에 바란 것 이상의 성과로 이어졌다. 연구팀은, 항구적으로 분열을 중지한 노쇠 세포를 중점적으로 관찰하다가, DNA 구성에 꼭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가 노화 세포에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반대로 젊은 세포의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을 인위적으

연구팀은 세포 내에서 영양분이 이동하는 생화학적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왕성히 분열하는 젊은 세포에 탄소 동위원소 표지 분자(molecules)를 넣고 3D 영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노화 세포 중에는 두 개의 핵을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세포들은 DNA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다.*
연합뉴스 2019.8.6 발매

간지림이 노화를 지연시킨다

간지림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USA 투데이〉 8월 2일자에 따르면 리즈 대학의 연구진은 “작은 전류로 참가자들의 귀를 자극하여 노화의 일부 효과를 늦추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간지림이 노화를 늦추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간지림은 급격한 몸놀림과 웃음을 유발하는 간지림이 아니라 귀에 간지림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대학의 생의학대학의 연구 저자이자 연구 책임자인 수잔 듀카스(Susan Deuchars)는 “이것은 이상한 치료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귀의 일부에 맞춤형 클립 전극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고통이 없다”라고 말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64>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아름답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내 몸인데도 남의 몸처럼 여기는 것은 바로 분열하는 마음, 못 마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별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급이 없는 평등의 마음이다.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 저 사람을 봐도 아름답다.
그런고로 눈에 띄는 사람마다 내 몸처럼 여겨라. 그리하여 집안 식구, 이웃, 제단 식구, 나아가서는 온 세계만민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는 습관이 완전히 자신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일체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노년행복설계하기 선(先) 가정봉양 후(後) 국가보호

20세기에 들어서 비서구사회(非西歐社會)에서는 이른바 서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기존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체계가 와해되었으나, 이에 반해 새로운 노인부양체계가 정립되지 않음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 노인 요양 시설에서 노인봉양과 수발에 큰 진전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예방보다는 사후 약 처방하기에 급급하다보니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급변한 사회 속에서 노인의 여러 면에 걸친 생활의 어려움은 해결되어야 하며, 짧지 않은 그들의 여생이 자립적이고, 참예적이며, 존경받고 보호받으며, 즐겁고 보람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대개 집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급속한 서구문화의 유입, 6·25전쟁기를 통해 얻어진 생존을 위한 윤리 배제적 생활관,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생겨난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은 전통적 가족주의 문화로서의 노인문제를 점차 가족 밖의 사회적 문제와 책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현재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노인복지법(1981년 6월 3일 제정, 1997년 개정)의 기본이념에 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현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인에 대한 경로와 생활안정, 노인의 능력에 따른 사회참여,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유지되는 건전한 가족체제의 유지·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복지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조치(구호가 필

요한 노인의 상담·시설 입소, 건강진단, 경로우대, 노령수당, 노인직종의 개발, 생업지원, 주택 등),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사업(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설치), 그리고 비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누구나 다가올 노년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한 노인문제의 해결 내지 노인복지정책 전개의 기본방향은 노인에 대한 ‘선가정봉양 후국가보호(先家庭奉養 後國家保護)’의 복지적 전개를 뜻하는 것이며, 전자는 노인을 위한 가족의 책임을, 그리고 후자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약 50%가 3세대 가족 안에서 자녀들의 가족주의적 봉양을 받고 있어 노부모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내 봉양의 풍습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에서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이 재검토·재조정되고 전통과 개혁이 조화롭게 공생·발전하는 새로운 노인부양 문화의 정립이 하루빨리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5지역 5개월만에 1등 개인 1등 박순희 권사

-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3등: 1지역(지역장: 정수윤, 지회장: 박경옥)
- *구역 1등: 33구역(구역장: 박순희)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3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개인 1등: 박순희 권사 2등: 강윤민 3등: 박태선 승사*

강춘희 5지역 부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6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는 2019년 7월 성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